#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죽왕면 시민기자
최돈불(choi3789100@hanmail.net)
▶토성면 시민기자
강성희(ruthcanada@hanmail.net)
김태극, 백옥식

※간성 · 죽왕 · 토성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십니다. 〈문의 : 681-1666〉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 · 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

장수영양탕
"변함없이 한결같은 맛"
영양탕 · 무침 · 전골 · 추어탕
군청 앞 골목길 ☎681-6010

# 금수리 레미콘공장 반대 진정서

## 신안4리 주민들 "행복추구권 보장" …고성군 "내부 검토 걸쳐 조만간 결정"

지난 6월 간성읍 금수리 지역에 들어서는 레미콘공장 설립에 대해 반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집단 반발했던 신안4리 주민들이(본보 6월 20일자, 제19호 보도) 최근 사업이 재추진되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신안4리(이장 장종환)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레미콘공장 건립 반대 진정서'를 고성군에 접수하고, 최근 삼익아파트 입구 등에 반대 플래카드를 재설치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현재 마을 주위에 3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농공단지에는 코다리 공장이 들어와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또다시 마을 주변에 레미콘공장을 허가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또 "신안4리 교차로는 간성읍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돼 있어 협소한 현재의 도로에 대형차량과 군인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레미콘공장이 가동되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대형차량이 오가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특히 "레미콘공장을 신청한 회사는 현재 토성면에서 다른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간성읍 중심부에 또다시 설립하는 것은 주민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회사 이익만을 생각한 부도덕한 처사"라며 "고성군은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절대 승인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해당업체가 그동안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 승인을 재신청 한 만큼 반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아동안전지킴이 겨울의류 전달

### 간성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간성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회장 김정래)는 지난 9일 오후 4시 간성초등학교 아동안전지킴이 회원들에게 겨울용 장갑과 내복을 선물하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최광호 기자

## 새농어촌건설운동 실천결의대회

### 삼포1리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죽왕면 삼포1리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대표 어기범)은 지난 8일 최영준 죽왕면장과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농어촌건설운동 공동실천과제선정 및 자율실천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최광호 기자

송림과 해당화가 어우러진 철새도래지
화진포 갈대밭에서 듣는 가을동화의 사랑이야기

화포리펜션은 가족단위의 휴식처는 물론
방문하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좋은 곳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봄이면 신비한 들꽃과 함께할 수 있고
여름이면 집 주위의 울창한 산림과 계곡물로 더위를 식히고
가을이면 하늘 풍경에서 딸 수 있는 밤이 주렁주렁
눈 내리는 겨울이면 눈꽃이 연출한 절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화포리펜션
www.hwapori.co.kr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132번지
☎033-682-1223, 010-6309-0003